

▶ 인세하기

서대문구, 무악재 하늘다리 13일 개통

2017.12.12 11:40 입력

서울 서대문구 안산과 종로구 인왕산을 녹지로 연결하는 '무악재 하늘다리'가 13일 개통된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현저동 1-404와 종로구 무악동 산3-10 사이 무악재 고개를 잇는 하늘다리(생태연결로)를 이날 개통한다고 밝혔다. 1972년 3월 통일로가 생기며 도로로 단절됐던 곳이 45년만에 다리로 이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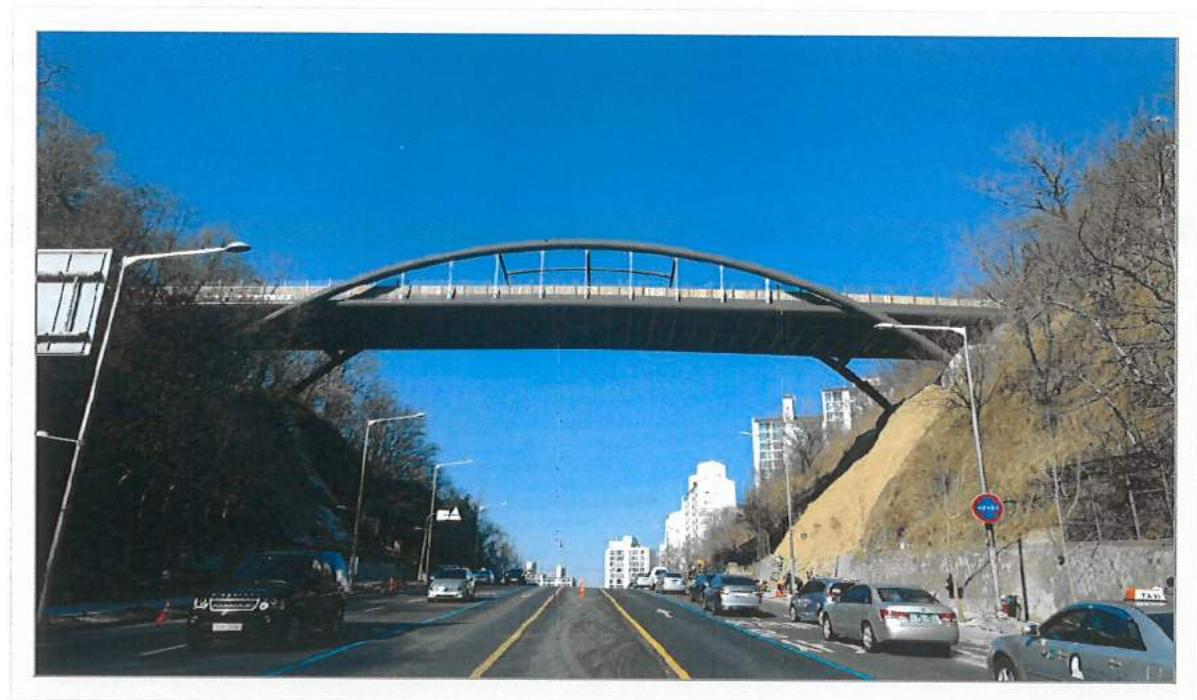
무악재 하늘다리(폭 11.7m, 길이 80m, 높이 22m)는 슬림한 형태로 시각적 중압감이 적고 구조 안정성이 우수한 '강아치교'로 세워졌으며 목재 덱(deck) 계단(333단), 목재 덱 로드(63m), 황토포장(150㎡), 마사토 포장(160㎡), 덱 심터(1곳), 정자(1곳)로 구성됐다. 서울시 예산 62억여원이 투입됐다.

구는 소나무와 구절초 등 31종 2만 600여 그루의 나무와 초화류를 심었으며 특히 야생동물 이동을 고려해 식이(食餌) 식물인 때죽나무.산딸나무.산사나무.덜꿩나무.조팝나무, 밀원(蜜源)식물인 산철쭉.찔레나무.썩부쟁이.별개미취 등을 수종으로 선택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백두대간 한북정맥에 해당하는 북한산에서 서울 주산인 북악, 우백호에 해당하는 인왕산을 연결해 역사적 맥을 잇고 동식물의 자연스런 이동과 이용 시민의 편의도 높이기 위해 '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을 민선6기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2014년 10월 사업계획 수립 및 서울시 투자심사, 공원조성계획 변경, 서울시 전문가 자문, 서울시 도시공위원회 및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으로 동·식물 이동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안산자락길에서 이 다리를 거쳐 인왕산 한양도성길까지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어 시민 호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인쇄하기

창닫기



아시아투데이 | <https://goo.gl/N4y1P3>

서울시 서대문구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

기사승인 [2017-12-12 10:14]



서대문구가 13일 45년 동안 도로로 단절됐던 안산과 인왕산을 잇는 '무악재 하늘다리'를 개통한다.

13일 오후 3시 안산과 인왕산을 녹지로 연결 ... 소나무 등 31종·2만여그루 심어

아시아투데이 정기철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13일 오후 3시 안산(鞍山)과 인왕산을 녹지로 연결하는 '무악재 하늘다리'를 개통한다.

1972년 3월 통일로가 생기며 도로로 단절됐던 곳이 45년 만에 다리로 이어진다.

무악재 하늘다리(폭 11.7m·길이 80m·높이 22m)는 슬림한 형태로 시각적 중압감이 적고 구조 안정성이 우수한 '강아치교'로 세워졌다.

목재 덱(deck) 계단(333단), 목재 덱 로드(63m), 황토포장(150㎡), 마사토 포장(160㎡), 덱 침터(1곳), 정자(1곳)로 구성돼 있다.

구는 소나무와 구절초 등 모두 31종·2만600여 그루의 나무와 초화류를 심었다.

특히 야생동물 이동을 고려해 식이(食餌) 식물인 때죽나무, 산딸나무, 산사나무, 덜꿩나무, 조팝나무 밀원(蜜源)식물인 산철쭉, 찔레나무, 쑥부쟁이, 벌개미취 등을 수종으로 선택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으로 동식물 이동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안산자락길에서 이 다리를 거쳐 인왕산 한양도성길까지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무악재 녹지 연결로 !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

서대문구, 13일 오후 3시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

기사입력시간 : 2017/12/13 [10:45:00]

변완영 기자



무악재 하늘다리

[국토매일] 서대문구가 13일 안산(鞍山)과 인왕산을 녹지로 연결하는 '무악재 하늘다리'를 개통했다.

1972년 3월 통일로가 생기며 도로로 단절됐던 곳이 45년 만에 다리로 이어졌다.

폭 11.7m, 길이 80m, 높이 22m의 이 다리는 '서대문구 현저동 1-404'와 '종로구 무악동 산3-10' 사이 일명 무악재고개를 잇는다.

무악재 하늘다리는 슬림한 형태로 시각적 중압감이 적고 구조 안정성이 우수한 '강아치교'로 세워졌다.

목재 덱(deck) 계단(333단), 목재 덱 로드(63m), 황토포장(150㎡), 마사토 포장(160㎡), 덱 심터(1곳), 정자(1곳)로 구성돼 있다.

총사업비 62억여 원은 모두 서울시비로 지원받았다.

서대문구는 소나무와 구절초 등 모두 31종 2만 6백여 그루의 나무와 초화류를 심었다.

특히 야생동물 이동을 고려해 ▲식이(食餌) 식물인 때죽나무, 산딸나무, 산사나무, 털꿩나무, 조팝나무 ▲밀원(蜜源)식물인 산철쭉, 찔레나무, 썩부쟁이, 벌개미취 등을 수종으로 선택했다.

앞서 서대문구청장은 백두대간 한북정맥에 해당하는 북한산에서 서울 주산으로 북악, 우백호에 해당하는 인왕산을 연결해 역사적 맥을 잇고, 동식물의 자연스런 이동과 이용 시민의 편의도 높이기 위해 '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을 민선 6기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2014년 10월 사업계획 수립 후 서울시 투자심사, 공원조성계획 변경, 서울시 전문가 자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및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서대문구청장은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으로 동식물 이동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안산자락길에서 이 다리를 거쳐 인왕산 한양도성길까지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무악재 하늘다리까지 포함해 서울의 산과 산을 잇는 녹지연결로가 3곳에서 개통됐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1~2곳씩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린트하기

서대문구 무악재 녹지 연결로 '무악재 하늘다리'개통

뉴스일자: 2017년12월13일 08시53분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대문구가 13일 안산(鞍山)과 인왕산을 녹지로 연결하는 '무악재 하늘다리'를 개통했다.

1972년 3월 통일로가 생기며 도로로 단절됐던 곳이 45년 만에 다리로 이어졌다.



서대문구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

폭 11.7m, 길이 80m, 높이 22m의 이 다리는 '서대문구 현저동 1-404'와 '종로구 무악동 산3-10' 사이 일명 무악재고개를 잇는다.

무악재 하늘다리는 슬림한 형태로 시각적 중압감이 적고 구조 안정성이 우수한 '강아치교'로 세워졌다.

목재 덱(deck) 계단(333단), 목재 덱 로드(63m), 황토포장(150㎡), 마사토 포장(160㎡), 덱 쉼터(1곳), 정자(1곳)로 구성돼 있다.

총사업비 62억여 원은 모두 서울시비로 지원받았다.

서대문구는 소나무와 구절초 등 모두 31종 2만 6백여 그루의 나무와 초화류를 심었다.

특히 야생동물 이동을 고려해 ▲식이(食餌) 식물인 때죽나무, 산딸나무, 산사나무, 덜꿩나무, 조팝나무 ▲밀원(蜜源)식물인 산철쭉, 찔레나무, 쑥부쟁이, 벌개미취 등을 수종으로 선택했다.

앞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백두대간 한북정맥에 해당하는 북한산에서 서울 주산으로 북악, 우백호에 해당하는 인왕산을 연결해 역사적 맥을 잇고, 동식물의 자연스런 이동과 이용 시민의 편의도 높이기 위해 '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을 민선 6기 공약으로 제시했다

2014년 10월 사업계획 수립 후 서울시 투자심사, 공원조성계획 변경, 서울시 전문가 자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및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으로 동식물 이동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안산자락길에서 이 다리를 거쳐 인왕산 한양도성길까지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무악재 하늘다리까지 포함해 서울의 산과 산을 잇는 녹지연결로가 3곳에서 개통됐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1~2곳씩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뉴스클리핑은 <http://womannew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참담기

서대문구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

도로로 단절된 안산(鞍山)~인왕산 45년 만에 녹지축으로 연결

2017-12-13 13:14



[아시아일보/이상관 기자]서대문구가 13일 안산(鞍山)과 인왕산을 녹지로 연결하는 '무악재 하늘다리'를 개통했다.

1972년 3월 통일로가 생기며 도로로 단절됐던 곳이 45년 만에 다리로 이어졌다.

폭 11.7m, 길이 80m, 높이 22m의 이 다리는 '서대문구 현저동 1-404'와 '중로구 무악동 산3-10' 사이 일명 무악재고개를 잇는다.

무악재 하늘다리는 슬림한 형태로 시각적 중압감이 적고 구조 안정성이 우수한 '강아치교'로 세워졌다.

목재 데크(deck) 계단(333단), 목재 데크 로드(63m), 황토포장(150㎡), 마사토 포장(160㎡), 데크 침터(1곳), 정자(1곳)로 구성돼 있다.

총사업비 62억여 원은 모두 서울시비로 지원받았다.

구는 소나무와 구절초 등 모두 31종 2만600여 그루의 나무와 초화류를 심었다.

특히 야생동물 이동을 고려해 ▲식이(食餌) 식물인 때죽나무, 산딸나무, 산사나무, 달팽나무, 조팝나무 ▲밀원(蜜源)식물인 산철쭉, 짚레나무, 쭉부쟁이, 벌개미취 등을 수종으로 선택했다.

앞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백두대간 한북정맥에 해당하는 북한산에서 서울 주산으로 복악, 우백호에 해당하는 인왕산을 연결해 역사적 맥을 잇고, 동식물의 자연스런 이동과 이용 시민의 편의도 높이기 위해 '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을 민선 6기 공약으로 제시했다

2014년 10월 사업계획 수립 후 서울시 투자심사, 공원조성계획 변경, 서울시 전문가 자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및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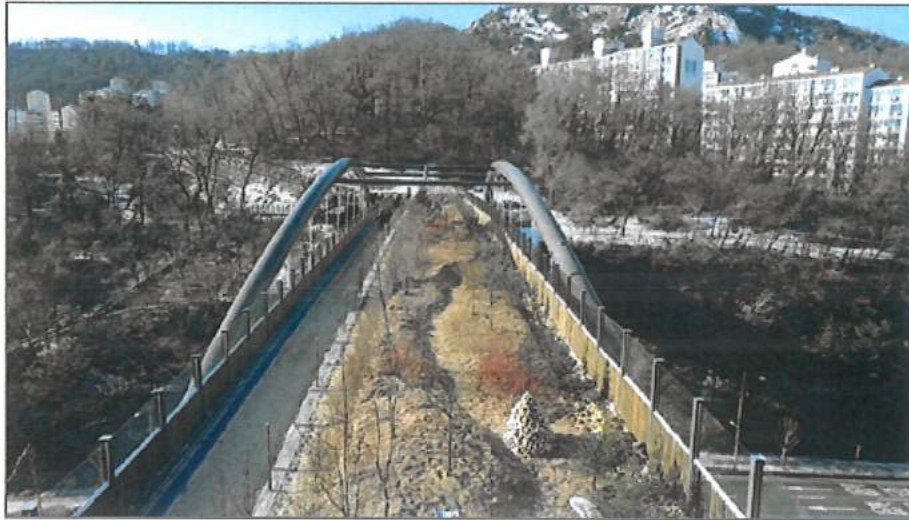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으로 동식물 이동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안산자락길에서 이 다리를 거쳐 인왕산 한양도성길까지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윤중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무악재 하늘다리까지 포함해 서울의 산과 산을 잇는 녹지연결로가 3곳에서 개통됐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1~2곳씩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악재 녹지 연결로!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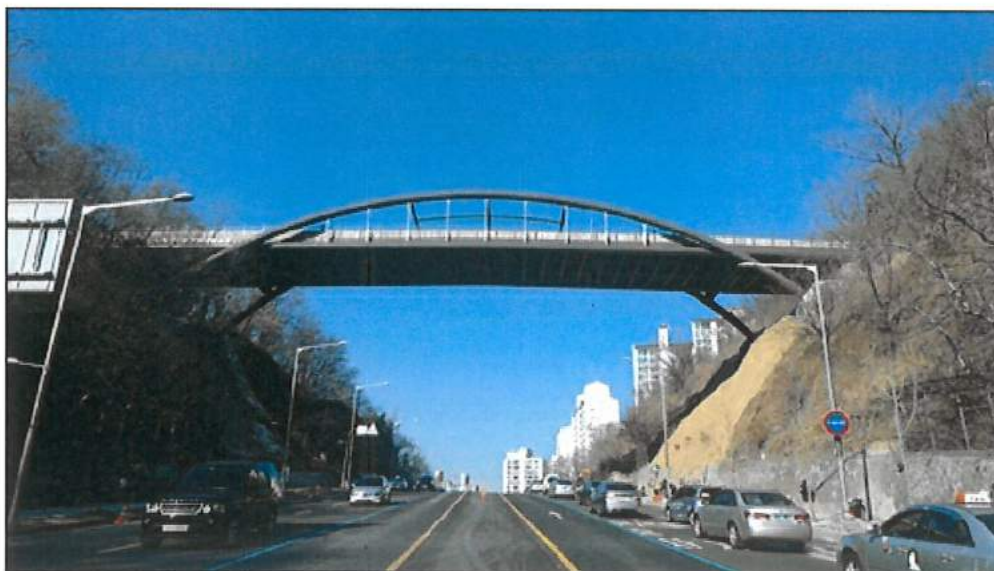
[2017-12-13 오후 12:31:10]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13일 오후 3시 안산(鞍山)과 인왕산을 녹지로 연결하는 ‘무악재 하늘다리’를 개통한다.

1972년 3월 통일로가 생기며 도로로 단절됐던 곳이 45년 만에 다리로 이어진다.

폭 11.7m, 길이 80m, 높이 22m의 이 다리는 ‘서대문구 현저동 1-404’와 ‘종로구 무악동 산3-10’ 사이 일명 무악재고개를 잇는다.



무악재 하늘다리는 슬림한 형태로 시각적 중압감이 적고 구조 안정성이 우수한 ‘강아치교’로 세워졌다.

목재 덱(deck) 계단(333단), 목재 덱 로드(63m), 황토포장(150㎡), 마사토 포장(160㎡), 덱 침터(1곳), 정자(1곳)로 구성돼 있다.

총사업비 62억여 원은 모두 서울시비로 지원받았다.

서대문구는 소나무와 구절초 등 모두 31종 2만 6백여 그루의 나무와 초화류를 심었다.

특히 야생동물 이동을 고려해 ▲식이(食餌) 식물인 때죽나무, 산딸나무, 산사나무, 달팽나무, 조팝나무 ▲밀원(蜜源)식물인 산철쭉, 찔레나무, 쑥부쟁이, 벌개미취 등을 수종으로 선택했다.

앞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백두대간 한북정맥에 해당하는 북한산에서 서울 주산으로 북악, 우백호에 해당하는 인왕산을 연결해 역사적 맥을 잇고, 동식물의 자연스런 이동과 이용 시민의 편의도 높이기 위해 '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을 민선 6기 공약으로 제시했다

2014년 10월 사업계획 수립 후 서울시 투자심사, 공원조성계획 변경, 서울시 전문가 자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및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으로 동식물 이동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안산자락길에서 이 다리를 거쳐 인왕산 한양도성길까지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무악재 하늘다리까지 포함해 서울의 산과 산을 잇는 녹지연결로가 3곳에서 개통됐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1~2곳씩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02-330-1396)

홈 > 뉴스 > 지방자치 > 서울

서대문구, 자연과 인간의 공존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

안산(鞍山)~인왕산, 45년 만에 녹지축으로 연결돼

2017년 12월 13일 (수) 12:26:12

이대인 기자 | sisa2003@korea.com



▲ 안산(鞍山)과 인왕산을 녹지로 연결하는 무악재 하늘다리 모습.

시사경제신문 이대인 기자 =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13일 관내 대표적인 명산인 안산(鞍山)과 인왕산을 녹지로 연결하는 '무악재 하늘다리'를 개통했다. 이로써 지난 1972년 3월 통일로가 생기며 도로로 단절됐던 곳이 45년 만에 다리로 이어졌다.

이번 다리 개통에 대한 총 사업비는 62억여 원 모두 서울시비로 지원받았다.

이번 하늘다리는 폭 11.7m, 길이 80m, 높이 22m이며, 무악재슬림한 형태로 시각적 중압감이 적고 구조 안정성이 우수한 '강아치교'로 세워졌다.

목재 덱(deck) 계단(333단), 목재 덱 로드(63m), 황토포장(150㎡), 마사토 포장(160㎡), 덱 쉼터(1곳), 정자(1곳)로 구성돼 있다.

구는 소나무와 구절초 등 모두 31종 2만 6백여 그루의 나무와 초화류를 심었다. 특히 야생동물 이동을 고려해 ▲식이(食餌) 식물인 때죽나무, 산딸나무, 산사나무, 덜꿩나무, 조팝나무 ▲밀원(蜜源)식물인 산철쭉, 짙레나무, 쑥부쟁이, 벌개미취 등을 수종으로 선택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백두대간 한북정맥에 해당하는 북한산에서 서울 주산으로 복악, 우백호에 해당하는 인왕산을 연결해 역사적 맥을 잇고, 동식물의 자연스런 이동과 이용 시민의 편의도 높이기 위해 ‘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을 민선 6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4년 10월 사업계획 수립 후 서울시 투자심사, 공원조성계획 변경, 서울시 전문가 자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및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무악재 하늘다리까지 포함해 서울의 산과 산을 잇는 녹지연결로가 3곳에서 개통됐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1~2곳씩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사경제신문(<http://www.sisa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x

[지역] 45년만 안산~인왕산 잇는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

기사입력 2017.12.12 16:31 최종수정 2017.12.12 1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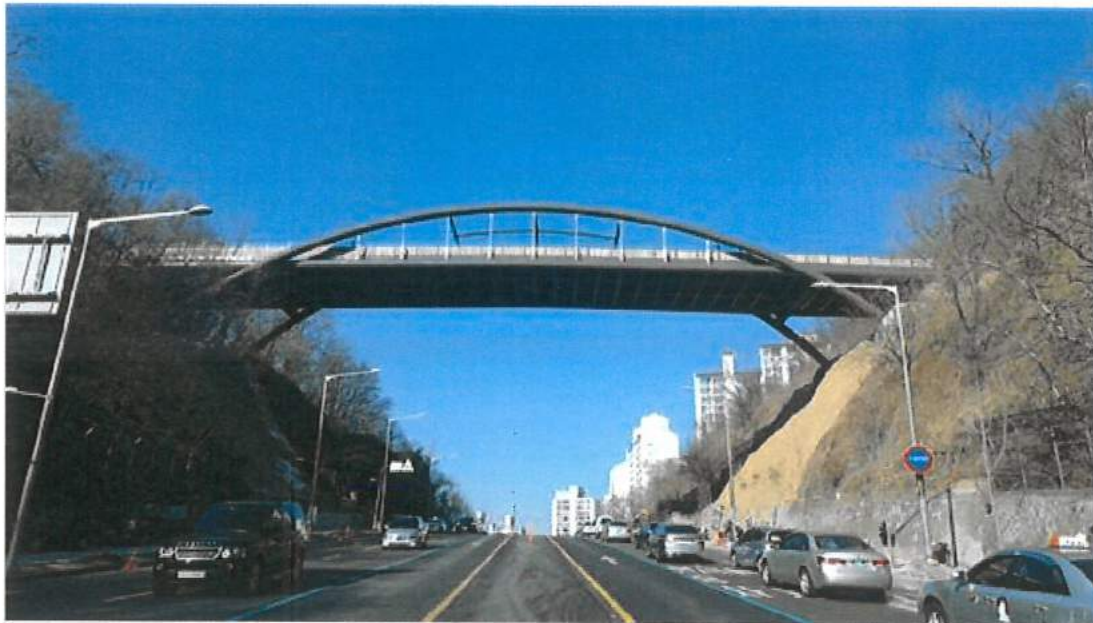
서대문구, 13일 오후 3시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식 가져...1972년 통일로 생기며 도로로 단절된 안산(鞍山)~인왕산 45년만에 녹지축으로 연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13일 오후 3시 안산(鞍山)과 인왕산을 녹지로 연결하는 '무악재 하늘다리'를 개통한다.

1972년3월 통일로가 생기며 도로로 단절됐던 곳이 45년 만에 다리로 이어진다.

폭 11.7m, 길이 80m, 높이 22m의 이 다리는 '서대문구 현저동 1-404'와 '종로구 무악동 산3-10'사이 일명 무악재고개를 잇는다.

무악재 하늘다리는 슬림한 형태로 시각적 중압감이 적고 구조 안정성이 우수한 '강아치교'로 세워졌다.



무악재 하늘다리

목재 덱(deck) 계단(333단), 목재 덱 로드(63m), 황토포장(150㎡), 마사토 포장(160㎡), 덱 심터(1곳), 정자(1곳)로 구성돼 있다.

총사업비 62억여 원은 모두 서울시비로 지원받았다.

서대문구는 소나무와 구절초 등 모두 31종, 2만600여 그루 나무와 초화류를 심었다.

특히 야생동물 이동을 고려, ▲식이(食餌) 식물인 때죽나무, 산딸나무, 산사나무, 덜꿩나무, 조팝나무 ▲밀원(蜜源)식물인 산철쭉, 찔레나무, 썩부쟁이, 벌개미취 등을 수종으로 선택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백두대간 한북정맥에 해당하는 북한산에서 서울 주산으로 북악, 우백호에 해당하는 인왕산을 연결해 역사적 맥을 잇고 동식물의 자연스런 이동과 이용 시민의 편의도 높이기 위해 '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을 민선 6기 공약으로 제시했다

2014년10월 사업계획 수립 후 서울시 투자심사, 공원조성계획 변경, 서울시 전문가 자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및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으로 동식물 이동이 원활해질 뿐 아니라 안산자락길에서 이 다리를 거쳐 인왕산 한양도성길까지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악재 하늘다리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무악재 하늘다리까지 포함해 서울의 산과 산을 잇는 녹지연결로가 3곳에서 개통됐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1~2곳씩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프린트하기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HOME > 사회 > 환경/교통

서대문구, '45년 단절'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

고수현 기자 승인 2017.12.13 17:14

62억 투입... 안산~인왕산 연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도로로 단절됐던 안산과 인왕산을 연결하는 다리가 13일 개통됐다. 앞서 1972년 3월 통일로 조성으로 단절됐던 두 곳이 45년만에 다리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는 '서대문구 현저동 1-404'와 '종로구 무악동 산3-10' 사이 일명 무악재고개를 녹지로 연결하는 폭 11.7m, 길이 80m, 높이 22m의 '무악재 하늘다리'를 이날 개통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무악재 하늘다리는 슬림한 형태로 시각적 중압감이 적고 구조 안정성이 우수한 '강아치교'로 세워졌다.

목재 덱(deck) 계단(333단), 목재 덱 로드(63m), 황토포장(150㎡), 마사토 포장(160㎡), 덱 쉼터(1곳), 정자(1곳)로 구성돼 있다.

총사업비 62억여원은 모두 서울시비로 지원받았다.

구는 소나무와 구절초 등 모두 31종 2만 6백여 그루의 나무와 초화류를 심었다.

특히 야생동물 이동을 고려해 ▲식이(食餌) 식물인 때죽나무, 산딸나무, 산사나무, 덜꿩나무, 조팝나무 ▲밀원(蜜源)식물인 산철쭉, 짙레나무, 쑥부쟁이, 벌개미취 등을 수종으로 선택했다.

앞서 문석진 구청장은 백두대간 한북정맥에 해당하는 북한산에서 서울 주산으로 북악, 우백호에 해당하는 인왕산을 연결해 역사적 맥을 잇고, 동식물의 자연스런 이동과 이용 시민의 편의도 높이기 위해 '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을 민선6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14년 10월 사업계획 수립 후 서울시 투자심사, 공원조성계획 변경, 서울시 전문가 자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및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문 구청장은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으로 동식물 이동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안산자락길에서 이 다리를 거쳐 인왕산 한양도성길까지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무악재 하늘다리까지 포함해 서울의 산과 산을 잇는 녹지연결로가 3곳에서 개통됐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1~2곳씩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수현 기자 smkh86@siminilbo.co.kr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인쇄하기



인쇄

[HOME \(/\)](#) > [전국 네트워크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7\)](#) > [서울 \(/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86\)](#)

서대문구, 안산~인왕산 잇는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

이준철 기자 | 승인 2017.12.13

시각적 중압감 적고 구조 안정성 우수한 '강아치교'



무악재 하늘다리 (사진=서대문구)

1972년 3월 통일로가 생기며 도로로 단절됐던 곳이 45년 만에 다리로 이어졌다.

서울 서대문구는 13일 안산(鞍山)과 인왕산을 녹지로 연결하는 '무악재 하늘다리'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폭 11.7m, 길이 80m, 높이 22m의 이 다리는 서대문구 현저동 1-404와 종로구 무악동 산3-10 사이 일명 '무악재고개'를 잇는다.

구는 2014년 10월 사업계획 수립 후 서울시 투자심사, 공원조성계획 변경, 서울시 전문가 자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및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총 사업비 62억여원을 서울시비로 지원받아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무악재 하늘다리는 슬림한 형태로 시각적 중압감이 적고 구조 안정성이 우수한 '강아치교'로 세워졌다.

강아치교는 목재 덱(deck) 계단(333단), 목재 덱 로드(63m), 황토포장(150㎡), 마사토 포장(160㎡), 덱 씬터(1곳), 정자(1곳)로 구성돼 있다.

구는 소나무와 구절초 등 모두 31종 2만600여그루의 나무와 초화류도 심었다.

야생동물 이동을 고려해 식이(食餌) 식물인 △때죽나무 △산딸나무 △산사나무 △털팽나무 △조팝나무 밀원(蜜源)식물인 △산철쭉 △짚레나무 △쑥부쟁이 △별개미취 등을 수종으로 선택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으로 동식물 이동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안산자락길에서 이 다리를 거쳐 인왕산 한양도성길까지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윤중 시 푸른도시국장은 "무악재 하늘다리까지 포함해 서울의 산과 산을 잇는 녹지연결로가 3곳에서 개통됐다"며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1~2곳씩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서울/이준철 기자 jclde@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철 기자 기자

인쇄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HOME > 서울자치구 > 서대문구

서대문구, 안산·인왕산 연결하는 '무악재 하늘 다리' 개통

조영남 기자 승인 2017.12.13 09:48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13일 안산(鞍山)과 인왕산을 녹지로 연결하는 '무악재 하늘다리'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는 1972년 3월 통일로가 생기며 도로로 단절됐던 곳이 45년 만에 다리로 이어진 것으로 폭 11.7m, 길이 80m, 높이 22m의 이 다리는 '서대문구 현저동 1-404'와 '종로구 무악동 산3-10' 사이 일명 무악재고개를 잇는다.

구에 따르면 무악재 하늘다리는 슬림한 형태로 시각적 중압감이 적고 구조 안정성이 우수한 '강아치교'로 세워졌다. 목재 덱(deck) 계단(333단), 목재 덱 로드(63m), 황토포장(150㎡), 마사토 포장(160㎡), 덱 씬터(1곳), 정자(1곳)로 구성돼 있다. 총 사업비 62억여 원은 모두 서울시비로 지원받았다.





구는 소나무와 구절초 등 모두 31종 2만600여 그루의 나무와 초화류를 심었다.

특히, 야생동물 이동을 고려해 ▲식이(食餌) 식물인 때죽나무, 산딸나무, 산사나무, 덜꿩나무, 조팝나무 ▲밀원(蜜源)식물인 산철쭉, 짙레나무, 썩부쟁이, 벌개미취 등을 수종으로 선택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으로 동식물 이동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안산자락길에서 이 다리를 거쳐 인왕산 한양도성길까지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문석진 구청장은 백두대간 한북정맥에 해당하는 북한산에서 서울 주산으로 북악, 우백호에 해당하는 인왕산을 연결해 역사적 맥을 잇고, 동식물의 자연스런 이동과 이용 시민의 편의도 높이기 위해 '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을 민선 6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영남 기자 news@hg-times.com

<저작권자 ©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